

전주명품 복숭아큰잔치 행사

오늘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려 직거래 행사 통해 대도시 출하비용 생산농가 소득 높여

전주명품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은 전주 5대 농특산물 중 하나인 전주복숭아의 지역 특산물과 인지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제20회차 행사)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복숭아 큰잔치는 지방화시대 농정시책으로 1999년도에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를 전주를 대표하는 5대 농특산물로 선정 후 지역특산농산물 홍보 및 지명도를 높이고 맛있고 신선한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특산물로서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0회차 복숭아 축제에서는 복숭아 직거래와 문화축제를 위주로 진행, 전주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복숭아 4,000/4 kg여 중 품질이 우수한 2,000 여 상품을 행사장에서 매일 직거래한다.

또한, 명품복숭아선발 품평회를 비롯, 품종별 전시회 복숭아 재배관련 자료 전시회, 부대행사로는 전통가요 전문 채널인 TBS의 협조 전통가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이를 동안 축하공

연이 펼쳐진다. 행사기간 동안 출하물량 기준 1억원 정도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복(福)숭아로 건강도 기원하고 고품향을 전하자 복숭아 큰 잔치 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복숭

아 큰잔치 행사에 참여하여 기능성과 약리작용이 풍부한 명품 복(福)숭아로 고품향을 전하고 받는 이의 건강까지 챙기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복(福)숭아를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연구결과 복숭아를 냉장 보관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관후 8°C 13°C 정도로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명품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은 전주 5대 농특산물 중 하나인 전주복숭아의 지역특산물과 인지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북 농산물 ‘예담채’ 제주도 휴양객 손으로

제주도 하나로마트 전북 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여름철 대표 휴양지 제주도를 찾는 휴양객에게 전북 농산물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제주도 소재 하나로마트 6개소에서 입농협, 중문농협, 제주시농협 노형점, 제주축협 이라·삼화·노형점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북 농산물 특별판매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시장 및 휴양객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전북 농산물 제주 판촉전을 올해는 초복(17일)과 중복(27일) 사이에 실시함으로써 여름 제철 농산물 중점판매, 전북에서 재배되는 버를 제주 현장에서 가장 판매하고 있는 김제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부의 상상예찬 쌀 홍보 및 판촉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박, 복숭아, 멜론의 제철과일과 올해 과잉 생산으로 재고 부담이 다소 우려되는 양파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할인 판매 전북 쌀 증정행사를 통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농산물의 판로 다변화를 위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을 지속적으로 공략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제값받는 전북 농산물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여름철 대표 휴양지 제주도를 찾는 휴양객에게 전북 농산물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제주도 소재 하나로마트 6개소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북 농산물 특별판매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세계경제 위험요인 과소평가될라”… G20서 경중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까지 이틀 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G20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과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먼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무역갈등과 글로벌 불균형, 금융시장불안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와 구조개혁 등을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 부총리도 세계경제

의 위험요인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범위 역시 과소평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스스로의 위기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여력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

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 기술발전과 금융, 일의미래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과 관련,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만큼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분석을 하고 IMF와 지역금융안정망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발전과 금융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등 암호화자산을 국가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만큼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나가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재무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모임이다. /뉴스

사상 최악 폭염에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경신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며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 예측치를 초과함에 따라 전력 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올여름 들어 최대인 8974만kW(킬로와트)에 달했다. 예비율도 9.5%(예비력 866만kW)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을 통해 8월 2~3째 주에 전력수요가 최대 예측치인 8830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마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아졌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는 폭염이 지속되자 최대 전력 수요가 이번 주에는 올 여름 최대 예측치인 8830만kW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정

부 예상치보다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500만kW부터 100만kW 단위로 준비순으로 발령된다.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긴급발전이 시행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요예비 확보하는 예비력(예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석탄, 가스 등 발전기 5기와 송전전선비 보강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약 250만kW 이상의 공급능력이 추가 확보되어 8월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

로또 당첨금 20억원… 내달까지

주인 안 나오면 곧 '소멸' 예정

약 20억원에 이르는 로또 당첨금이 당첨자를 만나지 못해 곧 소멸될 예정이다.

23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추첨된 제769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19억8342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1등 미수령 금액은 19억 3076만원이다.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이며, 당첨자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복권판매점에서 해당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등의 미수령 금액은 5266만원으로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에 보너스 번호 4가 포함된다. 복권 구입 장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영일동의 복권판매점으로 전해졌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20여억원의 당첨금은 다음 달 27일이 지급 만료기한이다.

민약 만료기한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유공자·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김정은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기도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첨일 이후 반드시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수산대학, 전북 대성마을서 하계 농촌재능기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3~25일 전북도 진안군의 대성마을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와 환경정화 등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재능기부 활동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다.

한농대 학생들은 각각 팀을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마을의 특산물인 인삼, 콩 구지깃 재배 농가의 일손 돕기와 논로와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기, 주민과 방문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등 마을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마을 주민들에게 석회보로도 액 사용방법과 밭효소 만드는 방법, 각종 농기계 수리기술 등을 교육한다. 간이토양분석기를 이용해 대성마을의 토양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작물 재배와 토양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합준수 한농대 학생은 "더운 날씨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풀업을 앞둔 마지막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재능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